



‘위드 코로나’, 어디부터 갈까?

해외여행 관련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참았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먼 얘기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구역) 지역 확대로 공항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신접종하면 해외여행 가능한 곳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혼자나 삼삼오오 여행을 떠나기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정 조율이 여러모로 어렵고 불편한 데다 안전에 대한 적지 않은 위험요소도 있다. 사실상 지금은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하는 여행이 대부분이고 이에 여행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여행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보건패스 등의 서류를 늘 소지해야 하고 국가나 일정에 따라선 중간 현지 병원에서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현지 호텔과 식당 이용 시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각국 방역 상황에 따라 변수도 많아 자유여행은 쉽지는 않다.

여행 가능한 나라와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등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감염 안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 간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한다.

지난 8일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싱가포르를 접종증명서, 검사 음성확인서, 여행 보험만 있으면 11월 15일부터 개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

이미 트래블 버블이 가동되고 있는 사이판은 한국인이 여행을 할 경우 PCR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여행비도 일부 보전해준다. 4000명에게만 한정판으로 여행을 허용하고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등 국내 7개 여행사에 고객을 맡겼다.

괌의 경우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음성이라면 현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괌은 성인인구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황이다. 괌 여행 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

우 자가격리 기간 없이 현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 이동도 만 6세까지는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스위스와 스페인 및 유럽은 백신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다.

미국도 11월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입국 과정에서 입증하면 된다. 영국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는 새 방역지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은 입국 전 검사와 10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유명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경우 8일간 격리와 그 비용을 부담하긴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10월부터 일부 허용했다.

아시아 관광 대국인 태국은 11월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베트남도 12월부터 저위험 국가에 여행지를 개방할 계획이다.

인도는 11월 15일부터 민항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내주기로 했고, 호주 역시 일부 주에 한해 곧 국경을 개방할 방침이다.

지중해의 몰타섬은 7월부터 관광객을 받고 있다. 모든 국가의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도착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 없지만, 간단한 코로나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몰디브는 모든 목적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몰디브를 방문하기 전 출발 96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 음성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여행 최소 48시간 전에 관광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모든 관광객은 연락처 추적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각국 입국 조치가 자주 바뀌므로 출국 전 입국 조건을 재확인해야 함을 당부했다.

출국 전 갖춰야 할 서류

PCR 영문음성확인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 출국 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여권이었다면, 이제는 여권과 함께 PCR 음성확인서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각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2시간 내에 검사한 서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병원에 따라 검사비를 포함해 10만~20만 내외로 비싼 편이지만 이 서류가 없이는 해외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해외여행을 한 뒤,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PCR 영문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한국으로의 입국을 기준으로 현지에서 72시간 전에 시행된 음성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와는 상관없이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영문음성확인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이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출력까지 가능하다.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 1일 시행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됐으나 8월 30일부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진행, 결과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 2회만 PCR 검사를 했던 기존에서 1회 더 증가하여 귀국 후 총 3회의 PCR 검사를 받는다.

무료인터넷 강의 사이트

KOCW 한국 교육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이다. 국내외 대학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과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 190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1만5천여 개의 강의와 함께,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2,300여 개의 강의를 제공한다. 실제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집이나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http://www.kocw.net>

늘배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평생 교육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과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평생 학습참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오픈한 사이트다. <http://www.lifelongedu.go.kr/main.do>

배움나라 정보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오픈한 무료 IT교육 사이트이다. 자격증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1인 미디어 대세가 떠오른 요즘 나만의 영상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http://www.estudy.or.kr/estudy3.0/kor/index.asp>

평생학습포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인터넷 강의 사이트이다. 취업, 외국어, 취미, 자격증 등 무료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http://sll.seoul.go.kr>

지식(GSEEK)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다. 자격증, 취업, 언어, 직무, 생활 정보, 인문교양, 은퇴설계, 시민참여, 청소년, 다문화 등 14가지의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다. 경기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http://www.gseek.kr/main/intro>

K-MOOC 국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MOOC이다. 대학 강의를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2015년 27개 강좌로 시작해 현재 500500여 개가 넘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http://www.kmooc.kr/>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일종의 완전 방역 포기정책입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영국·이스라엘 등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21년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모임 제한 등의 방역규칙을 전면 완화해 위드 코로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축구경기장에 붓물 터지듯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득 메우며, 마스크 없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새롭게 형성된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세균실험을 위해 진행중 의도적이든, 실수로 전염이 되었던 이제는 같이 살아야 할 존재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드(WITH)’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만남의 설렘보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결코 나홀로 인생의 뒤안길에서 훑쳐보기의 인생이 되선 안됨을 전제합니다. 사람 인(人)자에 나타난 인간의 존재됨은 상호 의존적 협동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워싱턴의 놀런 클리크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키가 큰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부의 허가로 벌목꾼들이 숲의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측백나무도 베어낼 대상이었지만 베기에는 너무 아까워 차마 베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나니 이 나무가 시름 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를 다시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양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나무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하더라도 혼자 허허벌판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무들이 잘려나가면서 이끼와 다른 나뭇가지들이 죽어버리자 충분한 수분을 얻지

못한 큰 측백나무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끼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가시나무도 필요합니다. 무엇과 제일 먼저 함께해야 할까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없어 다시 풀고, 끼워야 합니다. 순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적당히 하고 콘크리트를 올리면 지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는 아닙니다. 이놈은 우리의 호흡기에 흡착해 폐를 부식시키며,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불청객은 이미 이 땅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적 관계인가, 지배적 관계인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이, 싸움의 결말로 건강한 동거(?)를 결정합니다. 이것과 싸우기 위해 스파링 상대로 면역주사에 신뢰성이 있다면 맞아줬지요.

이기기 위해 지원군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타민을 복용하며, 물을 많이 마시며, 내 안에 최전방을 지키는 ‘백혈구 용사’들이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길 그 첫관계는 나를 지으신 이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사실상 그분의 우리를 향한 콜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는가요?

그분과의 관계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위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통한 ‘위대한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했던 초대교회는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복음은 코로나를 이기는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유사행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그늘에 앉아 집에서 TV 시청하듯, 설교를 시청한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순종의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로 선순환 교통이 있게 됩니다. 예배는 듣고, 삶으로 열매로 이어지는 거룩한 교통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원에서 명강사가 어려운 수학을 쉽게 풀어주는 강의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학생은 매번 강의만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수학 실력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선생이 풀어주는 그것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의 착각으로 공부가 되는 것처럼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특히 응용문제가 나오면 거의 손을 놓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당을 나오면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수고가 없이 편안하게 듣고자 하는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한 달란트를 숨긴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순종으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설교로만 증독되는 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헬레니즘 방식에 익숙해서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광장에 모여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예배에서 좋은 설교 한번 듣고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세상에 나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은 살수록 침투를 허용하는 패배자가 됩니다. 무너진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수많은 가나안 성도를 양산하며 ‘설교 시청자’를 만들어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관하여 정보를 듣는 사람을 양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순종할 때만이 그분을 알고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행11:26). 이제 승리의 삶이며, 무너져 버린 삶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승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대한민국 대통령 선택의 조건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는 어느 선거와는 다르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분단상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 대통령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뽑아놓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곧 해당 국가의 운영권과 국군 통수권을 갖고 국민의 안위를 우선으로 일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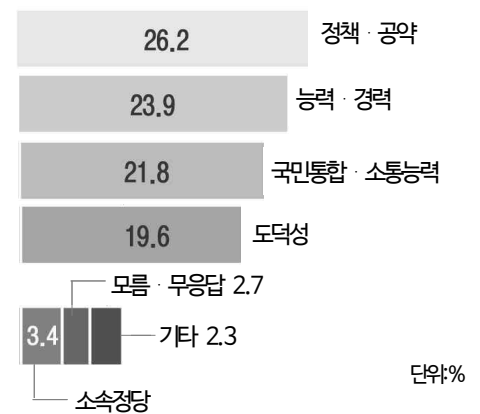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먼저, '소신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일이다. 1960년대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그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다가오는 4차산업 시대에 대한민국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하여 비대해진 수도권 분권화에 대한 해결책,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빈부의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비전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기몰이식의 알팍한 공약보다는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담긴 '소신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대통령을 뽑은 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1명은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여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정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그 자질을 검증받고 있다.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여야 합의하에 인정하여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공직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추천된 사람마다 부동산과 학력 위조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죄경력이 일반 국민에게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삶이 모든 국민에게 본이 되며, 국민과 법 앞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과 도전과 모험정신으로 미래 발전상의 청사진을 그릴 줄 아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이를 밀어붙이는 실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밀어붙이는 실천력이 물리적인 우격다짐과 같은 앞 뒤 없는 전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보호와 공공복지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최적의 자원과 인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변화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자질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책·공약(29.1%), 능력·경력(26.3%), 도덕성(18.6%) 등 순이었고, 여성은 국민통합·소통 능력(25.5%), 정책·공약(23.4%), 능력·경력(21.5%) 등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20·30·40대에서 정책·공약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34.9%, 30대는 37.3%, 40대는 31.0%가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봤다. 50대는 능력·경력(28.3%), 60대는 도덕성(31.3%)을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케이스탯리서치가 창간 75주년 기념 여론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0%(총 4824명과 통화해 1012명 응답))

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 우주로 첫걸음

10월 21일 오후 5시. 2010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온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가 발사되었다. 누리호는 발사 274초 뒤 고도 258km에 이르러 2단 로켓도 분리했다. 곧바로 3단 로켓이 불을 뿜었다. 발사 967초가 지나 3단 로켓이 목표 상공인 고도 700km에 도달했다. 하지만 속도 부족으로 1.5t 무게의 위성모사체 궤도진입은 실패했다. 마지막 단계의 실패가 아쉽지만, 누리호 발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표적 안보 기술로 국가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우주발사체 기술과 전략무기인 미사일, 특히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 자력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인도·일본·이스라엘·이란·북한 등 9개국뿐이다. 이 중에서도 무게 1t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뿐이다. 이스라엘과 이란·북한은 300kg 이하 위성 자력 발사 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주술 정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토론회에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나온 모습이 TV 카메라에 포착되며 무속인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때아닌 정치권 무속신앙 논란으로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무속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선거 캠프 장소에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등 현실정치 외적인 부분에도 집중한 사례에 관심이 쏠렸다.

주술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어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어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을 말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0년 여의도로 당사를 옮기면서 종로 관훈동 구 당사에 자기 사진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기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무속인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친의 묘를 옮긴 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해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제7대(1971년), 제13대(1987년), 제14대(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후 네 번째 도전 전 1995년 부모 묘소를 이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관훈동 민정당 당사에서 대선을 치렀다. 이 장소는 1981년 신군부가 민정당을 창당하면서 사들인 곳으로 전두환 씨가 풍수지리를 대거 동원해 물색한 터다. 민정당사가 있던 곳은 권력이나 관운을 상징하는 '닭 뿔'라 해서 최고의 명당으로 불렸다. 이곳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을 눌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이비 교주의 딸 최순실에게 의존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임금 왕(王)' 논란은 해프닝을 넘어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 무속신앙 등이 얼마나 깊게 자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헝다 파산, 세계 경제의 쓰나미 되나

수년간 꼬리를 무는 버블 경고에도 견재함을 과시했던 중국 건설 부동산 시장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중국 경제와 부동산 매수자와 개인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경제 성장동력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기업과 함께 부동산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은 현재 2위 부동산 그룹 ‘헝다’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에 봉착한 실정이다. 중국 부동산 부채의 뇌관을 건드린 헝다 파장이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파산 위기에 여전히 불안하다.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시아가 헝다그룹(에버그란데)에 이어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부동산에 압박이 더해졌다.

중국의 부동산·건설 산업은 GDP의 29%를 차지한다. 중국 경제활동의 약 3분의 1이 부동산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대규모 차입금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중국 당국은 부채자산비율 70% 이하, 부채주식비율 100% 이하, 현금단기채무비율 100% 이상 등의 3가지 레드라인을 도입했다. 이 같은 정책에 부동산 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헝다, 급한 불 꺾지만

헝다 그룹의 채권 규모는 1조 9665위안(약 365조 원)이다. 이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다. 파산 위기에서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35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헝다는 중국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세계 130여 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자칫 헝다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 대기업의 부실 문제를 표면화하면서 금융부실을 부각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 위협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파급될 경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의 169% 수준이다. 중국의 2020년 기준 부동산 시총은 414%다. 미국의 148%나 일본 271% 독일 339% 영국 354%보다도 높다. 부동산은 중국경제의 20%를 담당하는 중추 산업이다. 최근 추진하는 내순환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헝다의 채무위기는 국제적인 영향보다 국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켰다. 관련 건설·설계·자재 공급업체의 도미노 파산도 우려된다. 고용과 지방정부 재정 문제에도 타격이 커진다.

하지만 대형 부동산 업체의 부도는 중국의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바로 경제 위기는 물론 일자리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중국인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헝다는 지방정부와 국유부동산 업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헝다의 부도는 국유부동산 업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서 파산한 부동산 기업은 270개다. 중국 10대 부동산 업체 중에도 부채가 심한 곳은 헝다 외에도 룡창, 푸리 등 많다. 부동산 판매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온 비꾸이웨인의 부채도 11조 위안 규모다. 중국 정부가 헝다를 구해주면 나머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부동산 부실기업 부채도 모두 처리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헝다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했던 경제적 구조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놓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밝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2020년 중국경제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다. 그러나 2021년

에 들어서며 그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 델타주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중국의 민간기업 규제 강화도 투자심리를 저버리게 했다. 여기에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까지 더해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

중헝다 사태와 테이퍼링 대비하려면 어떻게

미국의 테이퍼링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헝다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헝다그룹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9월 20일 뉴욕 나스닥은 2.19%, 다우존스는 1.78% 하락하는 등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또 헝다그룹 사태의 영향으로 환율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헝다 리스크 등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만약 헝다그룹이 디폴트에 이어 파산한다면, 금융 불안정에 따른 대안책이 필요하다. 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 위험과 증시 급락, 스태그플레이션 등 변동성에도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경제의 비정상이 정상화로 복귀되고 있다는 신호로, 대미 무역을 독려하는 등 제반 여건도 더 활성화해야 된다.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조기 금리 인상이 국제 금융시장에 2013년처럼 ‘긴축 발작’과 같은 패닉을 몰고 올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한다. 다만 달러 자금 이탈로 신흥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더욱 늘리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성공해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테이퍼링이란?

테이퍼링의 원래 뜻은 ‘가늘게 하다’이다. 마라톤 용어로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다 대회가 다가오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 훈련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무언가의 강도를 낮춘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경기부양책의 강도를 서서히 낮춰가는 것을 뜻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던 양적완화 정책을 점점 축소하는 것으로, 기존 양적완화 정책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출구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점점 줄

어든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미국 금리가 오르며 달러 환율도 오른다. 시중에 풀린 달러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은 경제가 회복되는 중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세계 각국에 풀린 달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며, 신흥국들의 혼란스러운 경제가 다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줄어들니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가 테이퍼링을 주목하는 것은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헝다 그룹은 ...

1996년 설립된 헝다그룹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로, 현재 세계 280개 도시에서 1300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직원만 25만 명에 이른다. 설립자 쉬자인(許家印)은 빈농 출신에서 한때 중국 최대 부자로 등극해 중국 고도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중국 부동산 호황 시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헝다는 부동산업 외에도 전기차, 테마파크, 생수, 식료품, 축구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헝다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약 3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맞먹는다.



‘오징어 게임’ 세계적 현상, 좋기만 할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으로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조롱을 드러내면서 교계에서는 반기독교적 코드라고 비난하며 맥락 없는 기독교 비하라는 지적과 함께 기독교를 향한 대중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65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456명이 게임에 참여하여 최종 우승자가 받게 될 상금 456억은 456명의 목숨값이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추억 속의 게임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의 추억 속의 게임이 곧 생존게임이다. 매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 순간 죽는다. 오징어 게임에는 돈 때문에 죽고 죽어야만 하는 현실이 잘 드러난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 게임에는 유독 ‘기독교인’으로 표현된 인물들이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3명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왜곡된 시선으로 불편하게 표현되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있을 정도이다.

이 중에 대표적 이미지는 극중 ‘244번 참가자’이다. 그의 전 직업이 무엇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왜곡된 기독교 사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늘 기도하며 아무 때나 소리 내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아등바등 애를 쓴다. 목숨을 건 줄다리기를 한 뒤, 게임 참가자들은 게임에 이겨 목숨을 부지했다는 감사함과 동시에 남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그는 혼자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린다. 목숨을 건 ‘징검다리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본인이 살았다는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한다.

다음은 구슬치기 게임에서 출소자 ‘지영’은 탈북민

‘새벽’과 대화를 하면서 지영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죽어 있었고, 옆에는 아빠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조금 후 지영은 그런 아빠를 자신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아빠의 직업을 ‘목사’라고 특정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던 인간”이라며 그리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후에는 꼭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악질적인 묘사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해 받아들이는 이들의 비위와 몰상식한 행태가 교회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둘째, 교회가 이런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내버려 둠으로써 감내해야 할 해악에 대해 되새기게 해준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기독교 비하 방식은 잘못되었다. 자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 극악한 예를 든 다음,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 본연의 한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처사는 신앙의 본모습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무지의 소치다. ‘오징어 게임’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 혹은 교역자 신분을 자처하며 어둡고 부정적인 행위들을 자행하는 이들을 마치 한국교회 교인들과 교역자들의 정형인 것처럼 소개한다. 오로지 악하고 위선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그것이 핵심이자 본질인 것처럼 매도한다.

사이비 신앙인을 마치 전체 교회 교인들의 본모습처럼 매도하는 드라마의 묘사는 극도로 악의적인 일반화로서, 신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마지막은 오징어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된 주인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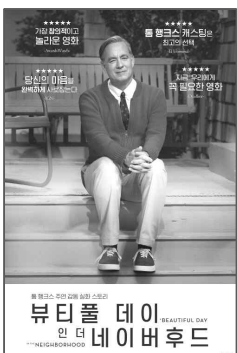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 오는 길거리에 버려진다. 그때 다른 행인들은 주인공을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열정적으로 외치던 한 전도자가 다가와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준다. 그리고 주인공이 길바닥에서 눈을 뜨자, 남자가 그에게 내뱉는 말은 “괜찮아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 여기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외침이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조건 없이 품고 조건 없이 섬겨주는 것이다.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지만 삶은 공감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삶으로 말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일단 한국교회 일부 교인들과 교역자들 사이에 잔존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리고 죄악된 습성과 미혹을 파하고, 온전한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모습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첫 번째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 비하가 일상화된 대중문화 콘텐츠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지닌 교회 및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소개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계는 대중문화의 기독교 비하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선하고 공의로운 본모습, 그리고 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의 약점과 고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흡입력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

뷰티풀 데이 인더 네이버후드



톰 행크스 주연의 <뷰티풀 데이 인더 네이버후드>는 미국의 공영방송 PBS의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 프레드 로저스 목사의 인간미 넘치는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그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TV쇼 <로저스 아저씨의 이웃>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린이들에게 음악과 인형극 그리고 놀이로 가르친 사람이었다.

<뷰티풀 데이 인더 네이버후드>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 시선을 통해 보

여주며, 그 외부인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동과 변화의 경험을 겪게 된다는 할리우드식 위인전의 형식을 갖고 있다.

에스콰이어 잡지사의 폭로기사 전문기자 로이드 보겔은 회사로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프레드 로저스에 대한 취재지시를 받는다. 아무리 유명인이란다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겔은 냉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려고 하지만 웬지 이 사람 만큼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로 프로그램에 등장

하는 캐릭터와 현실의 로저스는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인터뷰의 회수를 늘려갈 때마다 보겔은 로저스가 바라보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기독교가 고난과 상처받은 인생에 대해서 갖는 독특한 관점으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방법을 제시한다.

보겔은 좋은 이웃을 만났다.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좋은 이웃.

코로나가 몰고 온 지는 기업, 뜨는 기업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은 인류의 건강은 물론 전 세계 기업과 각국 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00년 이상 전통의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게 하면서 문을 닫게 하였다. 코로나가 모든 기업에 힘든 것은 아니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도 있다.

코로나에 쓰러진 공룡기업

① JC페니

118년 역사의 JC페니는 2020년 5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전달부터 만기가 돌아온 채권 이자 등 29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갚지 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한때 미 전역에 2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메이시스, 콜스, 시어스 등과 함께 미국의 소비문화를 이끌었던 중저가 백화점 체인은 ‘온라인 공룡’ 아마존의 탄생으로 휘청이다 무너져 내렸다. JC페니는 제임스 캐시 페니가 1902년 와이오밍주 탄광촌에서 시작했다. 이후 1924년 1000개의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 1929년 대공황 시작 직전 성장한 뒤 1970~1980년대에 최성기를 맞았다. 그러던 2010년 온라인 시장의 부상과 함께 10년간 45억 달러(약 4조8940억 원)의 순손실 규모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850개 점포의 문을 닫고, 직원 8만5000명을 해고했다.

② 니만 마커스

주로 고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백화점 체인 니만 마커스는 JC페니보다 먼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51억 달러(약 6조2400억 원)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 1907년 창업한 니만 마커스는 1907년 ‘오일 머니의 중심’ 텍사스주 댈러스를 거점으로 성장, 1970년대 뉴욕 백화점 버그도프굿맨을 인수하면서 미국 최고의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온라인 경쟁에서 실패하며 빚더미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43개 매장 전체 영업을 중단하고, 1만4000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다.

③ 로드앤테일러

로드앤테일러는 미국 백화점 체인 중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여성 최고경영자를 고용하는 등 큰 족적을 남겼으나, 1986년 모기업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급 이미지를 잃으면서 추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의류 대여 스타트업 르토티와 손을 잡으며 새 출발을 꿈꿨으나 전염병이란 변수를 만난 불우한 사례다. 로드앤테일러는 1826년 영국 이민자인 새뮤얼 로드와 조지 워싱턴 테일러가 뉴욕에 세운 식품의류 판매점으로 시작해 올해로 창립 194주년을 맞았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백화점은 고급 패션과 매년 성탄절에 선보이는 화려한 쇼윈도로 잘 알려져 있다.

미셸 오바마 전 미국 영부인이 즐겨 입으며 명성을 얻었던 제이크루는 2020년 5월 파산 수순을 밟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턴어라운드 실패, 리더십 부족으로 손실을 기록해왔지만 지난 3월 한 달에만 미국 내 500여 곳의 점포를 닫으면서 궁지에 몰렸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대형 소매업체는 제이크루가 처음이다.

④ 제이크루

1983년 뉴욕에서 카탈로그 업체로 출발한 제이크루는 미국의 국민 브랜드로 불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온라인 이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재정난을 겪어왔다.

⑤ 브룩스브라더스

‘대통령의 옷’ 브룩스브라더스는 2020년 7월에 몰락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복을 만들며 버텼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회사였지만,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는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역대 45명의 미 대통령 중 40명이 입은 것으로 유명하며, 세계 의복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셔츠 깃에 단추가 달린 ‘버튼다운 셔츠’를 개발한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1818년 헨리 샌즈 브룩스가 미국 뉴욕에서 세운 브룩스브라더스는 1988년 영국 기업인 마크앤스펜서로 주인이 바뀌었다가 2001년, 텔 베치오의 리테일 브랜드얼라이언스(현 브룩스브라더스그룹)에 매각됐다. 가뜩이나 캐주얼 의류가 인기를 끌고, 정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격리 조치와 재택근무가 이어지며 경영난이 심해졌다.

⑥ 레나운

일본의 120년 전통 어패럴 대기업 레나운이 파산했다. 아놀드파마, 더반, 이쿠아스큐팀, 타임리스 등으로 유명한 레나운은 코로나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타격을 받았다. 백화점들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매출액이 80%까지 감소했고 빚 138억 엔(약 1600억 원)을 갚지 못했다.

⑦ 아비앙카 항공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비앙카 항공은 1919년 설립됐다. 콜롬비아 최대 항공사이자 중남미에서 칠레의 라탐항공 다음으로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뚝 끊기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객기를 정상적으로 띄우지 못하였다. 세계 주요 항공사 중 첫 번째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빚만 73억 달러(약 9조 원)를 남겼다. 2019년부터 비용 절감 구조조정을 세웠지만, 코로나19에 문을 닫았다.

⑧ 화이팅석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급격한 채산성 악화로 업계 1위사인 미국 셰일 대기업 화이팅석유가 업계 최초로 파산을 신청하였다.

코로나로 덕본 기업들

① 게임업체

미국의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지난해 9월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가 다른 어떤 ‘콜 오브 듀티’ 시리즈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분기 매출은 15억2000만 달러(약 1조8500억 원)로 전년 동기(12억6000만 달러) 대비 21% 증가했다. 일본 게임사인 닌텐도 역시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1% 늘어난 3523억엔(약 4조463억 원)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② MS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4분기, 분기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 비디오게임과 같은 각종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와 기기들이 디지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필수품으로 떠오르면서다.

③ 소독제와 청소업체

미국 클록스(CLX)는 지난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멀티슈 등이 포함된 청소부문 매출은 32% 급증했다. 반려동물 관련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문에서도 2% 매출이 증가했다. 데톨을 만드는 영국 레킷벤치저(RB)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것은 소독제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지난 3~4월 분사형 소독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0.5%, 다목적 세정제 판매량은 109.1% 급증했다.

언택트시대 뜨는 직업·사라질 직업

자동화 위험 높은 직업	자동화 위험 낮은 직업	재택근무 어려운 직종	재택근무 용이한 직종
1 통신서비스 판매원	영양사	건물 청소 관리	컴퓨터·수학
2 텔레마케터	의사	식품 조리 서비스	교육·훈련
3 인터넷 판매원	교육관련 전문가	건설·채굴	법률 서비스
4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보건 의료 관리자	유지 보수 관리	기업·금융 영업
5 관세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생산직	관리직

※ 출처: LG경제연구소

※ 출처: 전미경제연구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시대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란 작가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예술가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기업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뜻한다.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이용료(구독료)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늘어나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국내 10만, 100만 구독자 이상 채널 수 증가 추이



틱톡 글로벌 다운로드 수 추이



웹툰 국내 작가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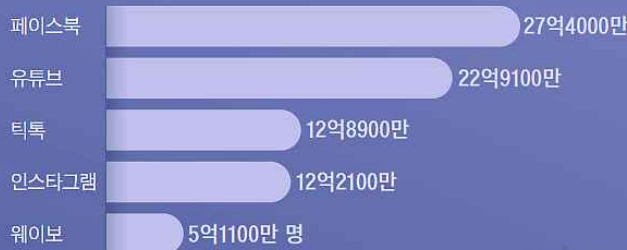


크리에이터 관리 주요 국내 MCN 매출 괄호 안은 성장률



커지는 크리에이터 무대

주요 글로벌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021년 4월 기준



▶ 유튜브는 최근 유료 구독 제도를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도입했지만, 크리에이터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광고 수입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형적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는 조금 다르다.

▶ 커지는 크리에이터 무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가 유료 구독 시스템을 도입, 크리에이터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 MCN(Multi Channel Network)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기획사 혹은 소속사를 일컫는다.

2020 한국 유튜브 구독자 Top 10

순위	채널명	구독자	2020	2019	성장	조회수	2020	2019	성장
1	Big Hit Labels	5,510만 명	3,280만 명	상장	2,230만 명	143억 1473만 뷰	82억 4793만 뷰	상장	60억 6679만 뷰
2	BTS	4,290만 명	2,500만 명	상장	1,790만 명	63억 5253만 뷰	34억 4995만 뷰	상장	29억 257만 뷰
3	Boyan	2,740만 명	2,300만 명	상장	440만 명	117억 3272만 뷰	87억 8229만 뷰	상장	29억 5043만 뷰
4	Leypudding	2,580만 명	2,550만 명	상장	30만 명	151억 948만 뷰	2019 147억 6938만 뷰	상장	3억 4009만 뷰
5	1M	2,290만 명	1,940만 명	상장	350만 명	60억 3068만 뷰	46억 7198만 뷰	상장	13억 5869만 뷰
6	ithek	2,160만 명	1,830만 명	상장	330만 명	184억 6595만 뷰	150억 7471만 뷰	상장	33억 9123만 뷰
7	JYP LEADERSHIP ENTERTAINMENT	1,960만 명	1,470만 명	상장	490만 명	114억 9996만 뷰	80억 5284만 뷰	상장	34억 4711만 뷰
8	Mnet K-POP	1,680만 명	1,290만 명	상장	390만 명	109억 6748만 뷰	78억 2210만 뷰	상장	31억 4538만 뷰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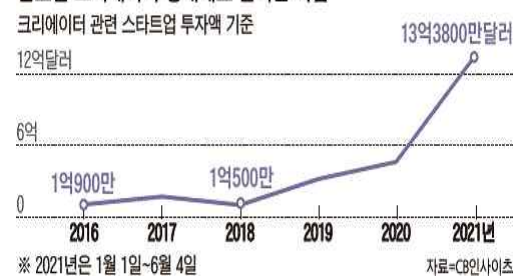
출처:소셜러스

크리에이터 자원 경쟁하는 플랫폼

플랫폼	유형	크리에이터에게 1억달러 지원
유튜브	숏폼 영상(쇼츠)	크리에이터에게 1억달러 지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숏폼 영상(릴스), AR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10억달러 지급
트위터	콘텐츠 유료 구독서비스(슈퍼 팔로어)	도입
틱톡	크리에이터에게 20억달러 지급	
텀블러	콘텐츠 유료 구독서비스(포스트+)	도입

자료=이코노미조선* 정리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몰리는 자금



유튜브 국가별 10만 구독자 이상 채널 수 2020년 12월 기준



숫자로 보는 크리에이터 생태계

유튜브	유튜브 1일 업로드 동영상 분량	틱톡	인스타그램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 분량	동영상을 다 보는 데 걸리는 시간	하루 평균 영상 조회 수	1초마다 업로드되는 사진 수
500시간	82년	2억 회	1074개
페이스북	웹툰 작가	국내 유튜브	
사용자 중 매일 접속하는 비율	평균 월수입	평균 월수입	
70%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1회 이상 연재 작가	한국MCN협회 등록 크리에이터	
	403만원	327만원	

※ 2021년 기준. 웹툰작가 월 수입은 2020년, 유튜브 월수입 2018년 기준
자료: 올니아젠시·웹툰가이드·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

‘살아있는 화석’인 은행나무는 진화를 거부한다

오늘날과 동일한 “2억 년(?)” 전의 은행나무 잎들 그러나 그들의 화석에는 종종 원래의 식물 물질이 남아있다.

2억 년 전을 가정하더라도 진화론자들은 은행나무 화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일대학 고생물학자인 피터 크레인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자동차와 출근자들 머리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 은행나무들이 공룡들과 함께 살았고, 2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2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진화론에 의하면, 이 기간이면 사소한 변화라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더 나은 가능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2억 년이라는 연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는 정말로 ‘시간을 잊어버린 나무’이다.



화석은행나무잎
-세밀한 부분도
변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은행나무 화석은 단순히 잎의 인상 자국이 아닌, 실제 식물성 물질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화석 나뭇잎들에서 사실이다. 보존된 얇은 유기물질 시트는 나무가 자라던 당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무에 관한 많은 세부사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과거의 지구 기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추측한다.

은행나무는 상당히 독특한 타임캡슐이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410ppm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바클레이는 그것이 나뭇잎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식물 시트 덕분에, 그는 인간이 지구의 대기를 크게 변화시키기 이전에 은행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화석화된 은행잎의 기공이 그에게 1억 년 전의 대기에 대해 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한 연구 목표에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이 있다. 한 문제는 오염이다. 만약 이 화석 잎이 1억 년 전의 것이라면, ‘장구한 시간’ 전의 다른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1억 년 전으로 추정하는 은행나무가 불과 수천 년 전의 것이라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은행잎을 연구용으로 선택할 때 몇 가지 장점

은행잎은 화석기록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으며, 부채꼴이 매우 뚜렷하여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은행잎은 화석기록에서 가장 흔한 나뭇잎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심한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은행나무의 잎과 2억 년 전 은행나무 잎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2억 년 이상 형태학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의 또 다른 예인 것이다. 은행 나뭇잎 화석들은 매우 흔해서 100달러가 조금 넘는 가격으로 화석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들은 중국에(한국, 일본에도) 잘 살아있고, 1750년경에 유럽으로 건너왔고, 이후로 장식 및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널리 심겨졌다는 것이다.

은행나무의 몇 가지 특성

은행나무는 높이가 20m에서 35m에 이르는 매우 큰 나무이다. 거의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매우 원시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억 개의 DNA 염기쌍을 가진 사람의 유전체에 비해, 은행나무는 106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전체를 갖고 있다. 사람은 2만3000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은행나무는 4만1840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다양한 환경적 공격에 대한 은행나무의 복원력은 탁월하다. 은행나무는 곤충과 곰팡이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을 죽일 수 있는 오염에도 견딜 수 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명체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나무는 가장 독특한 식물 중 하나이다. 은행나무는 거대한 유전체,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탁월한 저항성(내성), 암수딴그루(자웅이주) 번식 등 매혹적인 특성이 있어, 생물학 연구에서 이상적인 모델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암수딴그루 번식은 뚜렷한 성을 가진, 수컷 생식체와 암컷 생식체를 생산하는 개체를 만들어 번식하는 방법이다. 수나무는 꽃가루를 암나무는 배주를 서로 별도의 나무에서 만든다. 또한 은행나무와 소철은 운동성 정자를 가진 유일한 씨앗-생산 식물이다.

진화인가, 설계인가?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진화 역사는 진화론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은 은행나무가 어떤 면에서 소나무와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채꼴 모양의 잎은 솔잎들이 띠를 이루어 늘어서 있는 것과 매우 흡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은 진화론자들이 은행나무에 대한 한 세기가 넘는 연구 끝에 생각해낸 최선의 우스꽝스러운 추측이었다. 다윈은 은행나무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표현했다.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은 오늘날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은행나무잎은 독특한
부채꼴 디자인을 보여
준다.

요약

은행잎에 대한 연구로 기후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은행나무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은 계속될 것이다. 은행나무는 진화론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매우 독특하며, 살아있거나 멸종된 나무 중에서 친척으로 보이는 나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잎 조직에 대한 한 연구는 진화보다는 설계에 대한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최초의 은행나무가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나무였다는 사실은 설계 모델을 더욱 지지한다. 은행나무목의 현존하는 유일한 종인 은행나무의 잎은 약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잎의 추출물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제로 작용한다고 주장된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에서 은행 나뭇잎 추출물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방의 다이제스트

스코틀랜드, '조력자살' 합법화 막기 위해 연합

스코틀랜드에서 다수의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조력자살 합법화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낙태 반대 단체인 CNK연합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게 되면 취약한 이들이 자살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아프거나 우울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회의 역시 “조력자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타인에게 경제적·정서적 또는 돌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삶을 일찍 끝내야 한다는 말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력자살은 이미 2002년 이래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합법화됐다. 스코틀랜드의 조력자살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종교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지난달 200명에 가까운 의료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홈자 유사프 법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다수 속에 기독교 소폭 성장하다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개신교인이 2,040만 명, 가톨릭 교인이 842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2억 7,223만 명의 인구 중 10.58%에 해당하는 숫자로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9.87%가 기독교인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소수이거나 절반 이하인 지역은 웨스트 파푸아를 포함하여 4곳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판카실라라고 하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판카실라는 유일신에 대한 국가의 믿음과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 인간성,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5가지 원칙이다. 그러나 판카실라에 반대하는 많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종종 교회를 핏박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앞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이 같은 단체들의 박해로 문을 닫았다고 전한다.

인도네시아는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 순위에서 47위를 기록하였다.

美, 트랜스젠더 4성 장군 탄생

미 보건복지부(HHS) 차관보인 레이철 러빈(63)은 공중 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으로 취임했다. 러빈은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2011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러빈이 HHS 차관보에 오르면서 미 연방 정부 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고위 공직자로 기록됐다. PHSCC 단장은 4성 장군으로, 6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코로나19, 허리케인 등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보건 비상 상황을 총괄한다. PHSCC는 해군·육군·공군 같은 미 복무 조직 8개 중 하나로, 군사적 임무보다는 의료와 관련된 임무를 맡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빈을 차관보로 임명하면서 상원에서는 인준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으나 민주당 전원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52 대 반대 48로 통과됐다.

경쟁국 중국·일본, 한국에 선박 발주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LNG선은 운항 시 연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들

로부터 총 56만2천833CGT(11척)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선사들도 최근 한국에 컨테이너선 10척(10만1천990 CGT)을 발주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에 한 척도 발주한 선박이 없었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저가 수주가 대부분이고,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깝다. 특히 중국이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유주택자 10명 중 8명 “집값 상승 싫다”

한국리서치의 ‘부동산 관련 인식 조사’(만18살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결과를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5.1%가 주거비 부담이 커지므로 싫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집값 상승이 싫다는 응답이 81.5%로 높은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 95.4%, 전세 세입자 88.2%, 자가 거주자 81.9%로 세입자의 여론이 더 부정적이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지만, 응답자의 절반은 향후 집값이 안정될 거라 보지 않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책으로는 투기 단속(29.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택 공급(24.6%), 정부 개입 최소화(19.7%), 다주택 세 부담 강화(13.5%), 금리 인상(7.1%), 대출 규제(5.3%) 순이었다.

헌혈증 100장 있어도 수혈 못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 수가 계속 줄면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병원이 보유한 혈액량이 줄면서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헌혈증 수백 장을 가져와도 피가 부족해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헌혈 건수는 193만2862건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13만 7768건 감소한 수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5678건이 줄었다. 헌혈하는 사람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지정 헌혈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정 헌혈이란 수혈을 해줄 사람을 직접 지목해 헌혈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가 급히 필요하거나 수혈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마지막 수단이다. 문제는 ‘헌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희귀 혈액형일수록 수혈받기는 어렵다. 헌장관계자들은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한다.

청년 구직자 66% 취업 활동 단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7명(65.3%)은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

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10.7%),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7.6%), 적합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부족해서(4.8%)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평균 6.2회 입사지원 했는데 이 중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6회로 서류전형 합격률이 평균 25.8%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백신괴담’, 과연 관창을까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과 코로나가 공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코로나 치료제이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위해 치료 기간과 치명률을 낮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도입을 지원하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스터샷에 대한 궁금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델타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부스터샷에 대한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은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으며, 널리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특정 인구집단에서 경증 및 중등도 질병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 부스터샷 접종에 따른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 2회 접종 때와 유사하다. 피로감과 주사 부위의 통증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이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이 경증에서 중등도이다. 그러나 기본 2회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

-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여전히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등 2회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 또는 얀센과 같은 1회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 부스터 샷과 추가 접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스터 샷은 기본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접종한다. 추가 접종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면역 저하자에게 투여된다. 이 mRNA-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은 기본 백신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면역 저하자의

반응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스터샷에 대한 효과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한 논문에 따르면 최소 5개월 전 접종을 완료했던 113만여 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부스터샷 접종군이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11.3배, 중증화 예방률은 1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2주간(9.5~18) 만 19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0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이하에서는 확진자중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1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60대는 47%, 70대 72.5%, 80세 이상 70.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0월 말부터 지난 2~3월 접종해 6개월이 경과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종사자와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다. 얀센 백신 접종자도 오는 12월쯤 ‘부스터샷’(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을 맞게 된다. 그간 얀센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얀센 접종자가 맞게 될 백신 종류는 결정되지 않았다. 얀센 접종 후 부스터샷으로 mRNA 백신을 맞을 경우 더 강력한 중화 항체 반응을 보인다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앞두고 ‘백신 패스’ 검토 중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11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예고했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쏟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 체계의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백신 패스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이 모두 완료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증명서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유흥 시설, 영화관, 오락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패스권을 보여줘야만 출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백신 접종자에게 편리한 이용 권한을, 미접종자에게는 이용시설 제약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다.

다만 백신 패스의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범위, 운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된다. 돌파감염의 위험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간 싱가포르 역시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개발 현황

※ 자료:와신 종합

회사	머크(미국)	로슈(스위스)	화이자(미국)	시노노기(일본)
제품	몰누피라비르	AT-527	PF-07321332	미공개
진행 현황	임상3상	임상3상	임상1상	임상1상
투여 방법	1일 2회	1일 2회	1일 2회	1일 1회
가격	5일 기준 80만원	미정	미정	미정
특징	미국식품의약국(FDA) 긴급 사용 승인신청	연말까지 3상 결과 공개	올해 출시 목표	초기 연구에서 변이에 효과 확인



주요 국가 ‘백신 패스’ 적용 방법

	백신 패스 발급 대상	적용방법
독일	‘3G’ 음성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 접종완료자	살내행사, 병원·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가능
미국 뉴욕	접종 완료자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 출입 때 종업원·이용자에 접종 증명 요구
프랑스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에게 ‘보건패스’ 발급	장거리와 지역 간 이동, 극장과 경기장 입장 때 제시
이스라엘	접종완료자, 확진 뒤 완치자에게 ‘그린 패스’ 발급, 접종 완료 6개월 뒤 추가접종(부스터샷)해야 그린 패스 유지	공공장소 출입과 행사 참여 가능
이탈리아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 완료 또는 음성 판결 결과 요구한 뒤 ‘그린 패스’ 발급	그린 패스 제시하지 않을 때 정직, 급여 지급 중단. 그린 패스 없이 근무하면 최고 1500유로 벌금
덴마크	접종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코로나 패스’ 발급	적용 시설 단계적으로 확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중인 국내 업체

기업명	제품명	임상단계
대웅제약	DWJ1248정	2/3상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	2상 종료
동화약품	DW2008S	2상
뉴진테라퓨틱스	뉴진테라퓨틱스정	1상
크리스탈지노믹스	CG-CAM20	2상
신용제약	파라맥스정	2상 종료
엔지켐생명과학	EC-18	2상 종료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2021년 7월 26일 기준)

의심을 의심하다, 과연 정당한가

‘기독교는 왜 애매하게 종교의 하나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을까?’ 예전에 가끔 자문해 보던 물음이다.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절대 종교만이 강제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자의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선택이나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을 강요당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실 면목이 없다.

신앙생활 역시 자유가 있어 힘들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다울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 가진 의심은 참된 신앙을 갖는데 어찌면 꼭 필요한 과정일지 모른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의 저자도 프롤로그에서 신앙의 여정에 의심하는 적절한 효용성을 정확하게 되짚는다.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물론 회의주의자들 역시 스스로 논리 밑바닥에 깔린 모종의 신앙을 짊어 봐야 한다. 사실 의심은 일종의 대체 신앙으로, B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A라는 신앙을 의심할 수 없다. ‘참다운 신앙이 세상에 오직 하나 뿐 일 리 없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의심한다면 그 말 자체가 신앙 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평하려면 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해야 한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곱 가지 이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대성은 그 자신도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한결같은 상대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배타적인 주장들을 배격해야 한다면, 기독교의 배타성을 공격하는 회의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배격되어야 한다. 배타주의를 반대하는 관점이 편협한 게 아니라면, 전통 종교의 믿음을 내세우는 자세 또한 편협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종교나 진리 체계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 영적인 실재에 대한 가장 이치에 맞는 주장을 내놓는가가 관건이다.

하나님이 선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부당한 악과 고통의 양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페어플레이나 정의감에 둔다.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표준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자연도태라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 선한 뜻으로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래줄인가?

인간 공동체는 어김없이 공동의 신념을 가진다. 멤버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배타적인 집단으로 오인받아선 안 된다.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어도 연습을 거듭하는 식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해야 마침내 빛을 발한다. 사랑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려면 관계에 헌신하는 구속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시는 희생을 감당했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증인이다.

교회에 다니는데 왜 불의한가?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점진적으로 치료받아 나가는 병원이다. 물론 사랑과 겸손의 실천이 없는 이름뿐인 광신적 신앙, 위선적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비판받는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죄악들이 있지만, 성경을 따르는 신자들은 노예제도 폐지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다. 그들은 명예나 평판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윤리가 아닌, 타인 중심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성화되어 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근대의 정신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주었다. 서구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지만, 다른 전통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의 온갖 불의에 대해 내세에서 반드시 공평하게 갚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현세에서도 정의가 올바르게 추구될 수 있다. 삶의 마음에는 짝수부터 도려내 버리지 않으면 커서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지옥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려는 그대로 허락해 주는 곳이다. 이것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 낸 것 아닌가?

과학은 자연 현상의 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지만, 검증된 원인 외에 다른 요인은 일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입증해 낸 건 아니다. ‘초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자연 현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실험 모델이 없으므로 과학적 소견이 아닌 철학적 가설이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토대로 삼는데, 이는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일종의 신앙이다.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낮은 전설 묶음이라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 사후 15~25년 사이에 그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널리 퍼졌을 만큼, 성경 속의 예수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기엔 기록 시기가 너무 이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에도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당시 생존해 있던 반대자들이 당장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마치 목격자의 증언과도 같은, 고대의 문학 양식에는 거의 없었던 세밀한 묘사와 대화를 현장 보고 형태로 담은 역사적 서술이다. 그게 아닐면, 미화시켜야 할 창시자를 범죄자 취급한 십자가 사건이나 제자들의 비겁한 행동 등은 대충 은폐되거나 각색되었을 것이다.

팀 켈러의 변증 전략 1: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저자는 기독교의 허점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역공법을 즐겨 쓴다. 무엇보다 그는 철저한 증거 중심의 ‘강한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무신론자들 역시 신이 없다는 일종의 신앙을 가진다고 역공한다. 실증적인 증거가 없는 아무도 무언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입증해 내겠는가? 어렵고 없는 일이다. 결국 그 또한 일종의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다. 신앙에는 합리적인 요소가 없고 이성만 믿음을 크게 기대지 않는다는 신무신론의 주자,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팀 켈러의 변증 전략 2: ‘너희에게는 없지 않느냐’

저자는 죄를 단순히 ‘거룩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밖에 다른 요소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의 중심으로 삼고 그 위에 자기 정체감을 세워가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한다. 죄에 대한 독특한 개념은 기독교에만 열려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타인이나 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데서 자기 존재감이나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위주의 정체성 추구는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는 율법적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바로 잡힐 수 있고, 진정한 존재감에 대한 갈망 또한 올바르게 충족될 수 있다. 그 은혜는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용서의 합법적인 방도로 택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아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 곧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만 얻어 누릴 수 있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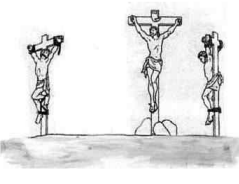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3			4		7	6
						4	5		
2		2			12		5		
				14					
17		13	13				6	7	
16	16								
	15	15				8			
19				11					9
17	18			11				10	
			12			9			

가로문제

-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얻기 위해 쓰는 항원
- 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
-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함
- 옳고 그름을 상대방에게 기탄없이 바로 말함
- 부동산 따위의 거래에서, 치러야 할 전체 액수 중에 일부만 먼저 주는 돈으로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
- 큰길에서 갈라져 나와 마을 안이나 집들 사이로 이리저리 나 있는 작은 길
- 사람의 몸에서, 목의 아래 끝에서 팔의 위 끝에 이르는 부분

- 제주도 한라산의 정상에 있는 화구호
- 한 계절이 끝나고 다른 계절이 시작될 무렵의 그사이 기간
- 쾌락을 누림
- 죄인의 목을 자르기 위하여 만든 대
- 방이나 집의 벽이나 반자에 종이를 발라 단장함
-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음
-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오는 웃음
-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 바둑에서,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몫시 나쁜 수
- 경찰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의 하나

세로문제

- 한 건물 안에 온갖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 진열하고 판매하는 대규모의 종합 상점
- 한 가정의 살림의 규모와 수입과 지출 따위를 적는 장부
-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광학 기계
- 직업을 잃음
-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속뜻이 숨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참깨를 볶아 소금을 넣고 뿜은 양념
- 직접 눈으로 본 것에 관한 이야기
-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산줄기
-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방전 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지난 10월호 정답입니다>

단	풍	비	몽	사	몽				
	전	상			유	행	가		
	등	록	금		간	병		죽	염
수	화			화	장				탐
뇌		껍		수			추	수	꾼
부	채	질		분	장		진		
	석		일		본		력		신
	장	아	찌		인	연		외	출
교			감	기		금			내
만	장	일	치			술	래	잡	기

- 정답은 2021년 12월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010-7152-4460)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전도축제 발대식 ■ 10월 17일 ■



전도축제를 위한 리더십 모임

블레싱 전도축제 11월 28일(주일)



문고리 심방

전
도

예
배



다드림예배 - 삼산1목장



국제사역 - 영어예배

담임목사님
심방 및 간담회



경인목장 사업장 심방



부평목장 이사심방



W.B.M. 실업인선교회



미술 심리치료-심리테스트



정리수납

헌아식▶
◀문화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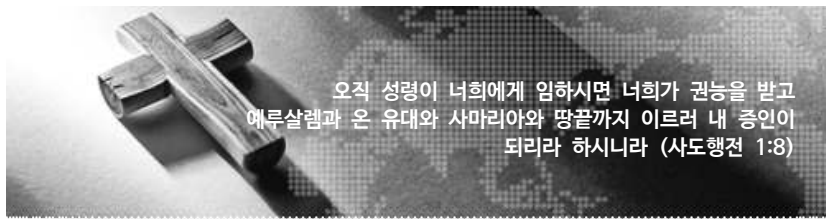
최종호/함은경선교사 아들 최은준



◀신혼3순모임
성경통독학교
(신약 통독)▶



■ 선교지 소식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Mission 세네갈 리차드 톨 지역 이재일/조순희 선교사

지난 몇 달간 삼부형제 가족은 내·외부적으로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이것이 집요한 사탄의 공격임을 알았음에도 이 시기를 견뎌내는 일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RT교회 사역자로서 교인들과의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그를 조금씩 지배했습니다. 무슬림 친척 집에서 자란 큰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후 계속 친척들의 무슬림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로 인한 가족 안에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앞니가 8개가 빠지는 오토바이 사고와 후유증, 고향에서 온 친구 딸이 대낮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 코로나 감염과 유행성 눈병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일에 주님께 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

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무슬림 친척들 손에 자라게 될텐데, 우리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어서는 안된다 울먹이던 형제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형제는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저에게 모든 자녀의 양육과 진로를 책임지는 권한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부형제를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 그를 남겨놓으실 것을 믿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에 유언장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복음에 담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악한 영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요동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Mission 필리핀 김도경 선교사

1. 코로나19 때문에 필리핀의 하늘길이 열리지 않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살고 있습니다.
2. 시간을 아껴서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잊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따갈로그어 공부와 따갈로그어 성경 듣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4.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입

- 국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광비자로는 아예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입국허가를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한적인 허락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6. 클락 공항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는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고 앞으로 특별 운항한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7. 끊이지 않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Mission GP선교회 김동건/배영혜 선교사

GP 한국선교회 본부근무 반개종법 위반으로 투옥된 선생님이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GP선생님들과 MK들이 코로나 중증&경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선교지원자들을 위한 SMC&본부&국제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규파송과 재파송 등 본부사역이 온오프 두 채널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콕 열린파키스탄난민교회 OPR교회는 방콕에 개척된 파키스탄 기독교 난민교회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어른 1명과 어린이 1명, 질병으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임시거주지와 구치소를 방문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태국 인들도 생활이 어려워져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예배하며 물질을 나누며 모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요한이와 며느리 정인이는 일하면서 의대&법대대학원 진학 준비 중입니다. 윤경이는 VCU키네틱아트(빛·소리·움직임·색채·등 종합미술) 3학년입니다. 배선교사와 하경이는 여름 귀국하여 한국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하경이는 대입 수시 지원 중입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본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본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국제 사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1 가을 블레싱 패밀리 축제

어린이를 통한 친국가족만들기

이야,
가족과 함께 가자

2021.11.28(주일)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본당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복화술의 달인
- 안재우복화술연구소
수잔 실장



1~2부 : 성인 초청 / 3부(오후 3시) : 어린이와 온가족 초청

이벤트 데이

11월 13일 (토) 오후 2시

청년부 전도집회

11월 14일 (주일) 오후 3시

전교인 전도

1차 : 10월 30일 (토) 오전 11시

2차 : 11월 6일 (토) 오전 11시

3차 : 11월 20일 (토) 오전 11시

※당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2)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

체육관로 82 부평청소년 수련관 옆